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설명자료 2017. 12. 4.(월)	한국교육과정평가원 Korea Institute for Curriculum and Evaluation 홍보출판실 ☎ 02-3704-3626

[자료문의] ☎ 02-3704-3626 최동문 홍보출판실장

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보도 관련 설명

□ 언론사명 : 경향신문

□ 보도일자 : 2017. 11. 24.(금), 11. 29.(수)

□ 기사제목 :

① '얼굴 용(容)이 손님 객(客)으로…수능 국어 지문에 오자'(11.24.)

② '수능 국어 또 '지문 오류' 논란'(11.29.)

□ 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<①번 기사 관련>

○ 국어 영역 33~37번 세트 지문에 실린 이정환의 연시조 「비가(悲歌)」 중 제1수 종장에 '학가(鶴駕) 선객(仙客)'이라는 표현은 '학가(鶴駕) 선용(仙容)'의 오자라는 이의신청 내용을 소개하며, 수능 지문에 오자가 있어 논란이 있다는 기사

○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시험에 출제된 이정환의 「비가(悲歌)」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.

- 김흥규 외 편, 『고시조 대전』,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, 2012, 397면.

○ 상기 인용한 『고시조 대전』은 한국연구재단 발주로 출간 당시까지 발견된 모든 시조 텍스트의 원문을 집성하고 정본화한 저작물로서, 현재 학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조 텍스트 자료집으로 활용되고 있음.

○ 『고시조 대전』의 집필 과정에서는 '선객(仙客)'이 '선용(仙容)'으로 잘못 판독되었다고 보아 '학가(鶴駕) 선객(仙客)'으로 정본화하였음.

○ 이의 신청자는 이정환의 문집인 『송암유고』에 '학가(鶴駕) 선용(仙容)'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『송암유고』는 이미 오래 전에 망실되어 원전을 확인할 수 없음. 다만, 학계의 최신 연구 성과를 고려할 때, '선용(仙容)'은 오식(誤植)이며 '선객(仙客)'이 문맥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지문에 활용하였음.

□ **보도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<②번 기사 관련>**

○ 국어 영역 20~22번 세트 지문에 실린 이육사의 시 「강 건너간 노래」 중 '못 잊을 계집애 집조차 없다기에'라는 시구와 관련하여, 1946년 『육사시집』 초판본에는 '못 잊을 계집애나 집조차 없다기에'로 출제 지문과 상이하여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기사

○ 2018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 시험에 출제된 이육사의 「강 건너간 노래」의 출처는 다음과 같음.

- 박현수 편, 『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』, 예옥, 2008, 71면.

○ 상기 인용한 『원전주해 이육사 시전집』은 여러 형식으로 유포되던 이육사 작품의 원전을 검토하고 이를 확정하여 수록한 정본집임.

○ 기사에서 '계집애나'의 출처로 인용한 『육사시집』은 이육사 사후 1946년에 출간되었는데, 이 판본에는 이육사가 원래 발표한 시를 시집으로 제작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○ 실제 이육사의 시「강 건너간 노래」는 이육사 생전인 1938년 7월 <비판>지에 최초 게재되었으며 여기에 '계집애'로 되어 있음. 그러나 이것이 와전된『육사시집』(1946)을 바탕으로, 이후 다양한 육사 전집에서 '계집애나' 또는 '계집애가'처럼 원문에는 없던 글자가 추가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발표 당시의 원본과는 다른 오기로 보아야 함.

○ 이육사 연구의 권위자로 알려진 심원섭의『원본 이육사전집』(심원섭 편, 집문당, 1986)에서도 <비판>지에 발표된 원문에 기초해 오류를 수정하였고, 그동안 발간된 이육사 전집에서 '나'가 잘못 첨가된 사례와 '가'가 잘못 첨가된 사례를 단행본별로 밝혀 정리해 놓은 바 있음. 이번 시험에서는 이러한 학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최초 원전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지문에 활용하였음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
홍보출판실 김은미 담당(☎ 02-3704-3875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